

전문가 부문 대상 '연화 등잔', 일반인 부문 대상 '사천왕 페이퍼토이', 우수상 연봉매듭 브로치와 목탁 모티브 자물쇠 '톡!톡!톡!' (사진 왼쪽부터).



중단협 스님들 연수 받는다

한일불교協, 이사장에 태고종 도산스님 선출

한국불교종단협의회(중단협, 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가 신도 교화와 불교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해 오는 3월12일부터 14일까지 공주 한국문화연구소에서 '각 종단 스님(정사)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중단협은 지난 20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제50차 정기총회 및 제1차 이사회를 열고 각 종단 스님 연수교육을 실시하는데 뜻을 같이 했다.

연수교육은 중단협 소속 각 종단의 스님 또는 정사를 대상으로 하며 80명을 선착순 모집해 열린다. 교육은 김용명 한국리더십센터 교수가 '신도상담과 소통의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의를 시작으로 이상근 회계사의 '사찰세무' 강의 등의 강좌로 이어진다.

이와함께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회장 자승스님)도 같은 날 제1차 이사회 및 제3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공석이던 이사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도산스님을 선출했다. 한일불교교류협의회는 오는 6월 9일부터 12일까지 일본 큐슈 젤도우지(善導寺)에서 '불교의 사상과 청소년 교육'을 주제로 한 제35차 한일불교문화교류대회 개최 등 사업계획도 심의, 확정했다. 박인택 기자

“창의적 문화상품 개발, 불교우수성 알린다”

불교문화상품공모전...정기란 성외순 씨 대상 수상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스님)이 불교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한국 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잘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하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이 참석해 사천왕페이퍼토이를 선보인 정기란(일반부문)씨와 연화 등잔을 제작한 성외순(전문가부문)씨에게 대상을 시상했다. 전문가 부문 대상에는 상장 및 상금 1000만 원이, 일반부문에는 5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와 함께 우수상 연봉매듭 브로치와 목탁 모티브의 자물쇠 '톡!톡!톡!' 등 총 37명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은 일반과 전문가 부문 총 580여 점이 접수돼 단일공모전에선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상 등 37명 '영예' 완성도 작품성도 높은 전문가 상품 '눈길'

참신한 아이디어에 실용적 상품도 많아 불교박람회서도 전시

예년보다 참가율이 향상돼 높아진 공모전의 위상을 실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 부문'이 신설됨에 따라 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출품작의 수준도 향상됐다. 국내 주요 디자인단체가 수여하는 특별상도 새롭게 제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불교문화상품 공모전은 창의적

인 전문문화 상품을 개발해 세계 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그 가치를 되새겨 현대인들과 일상에서 호흡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어느 해보다 다양하고 우수한 작품들이 출품된 것은 물론 디자인 상품의 수준을 뛰어넘어 문화콘텐츠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스님은 “전문가 부문은 높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자랑하는 상품군이, 일반 부문에서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용적인 상품들이 대거 접수됐다”며 “우리 전통문화상품시장의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수상작은 오는 28일까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 전시되며, 이어 3월6일부터 9일까지 불교박람회 현장에서도 볼 수 있다. 또 3월10일부터 31일까지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1층에서도 전시된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불교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한국불교의 문화적 가치를 잘 반영한 창의적인 문화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진행되는 불교문화상품공모전 시상식이 지난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렸다. 사진은 전문가부문 대상 수상자 성외순(오른쪽) 씨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작품을 설명하는 모습.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불교문화상품공모전 ... 심사에서 시상까지

일반과 전문가부문에 나눠 진행된 제6회 불교문화상품공모전에는 580작품이 응모해 역대 어느 공모전보다 성황을 이뤘다. 250여점을 선회하던 응모작품은 지난해 2배가량인 500여 점으로 늘어났으며, 올해는 580점으로 늘어나, 심사위원들은 행복한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김한곤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원장은 지난 19일 시상식에서 심사평을 통해 “창의성, 대중성, 실용성을 심사기준에 두고 작품을 평가했다”며 “한국불교를 현대적 감각에서 재조명한 아이디어 상품이 대거 출품돼 보람과 어려움을 느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꽃이나 동지승, 목탁 등으로 소재가 한정된 것”을 아쉬움으로 꼽으며 주최 측에 “우수상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안정된 유통망을 확보해 내국인이나 외국인들이 폭넓게 접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전문가부문 대상작인 '연화등잔'은 연꽃형태의 등잔으로, 불교적 감성이

현대감각 아이디어 반영 지난해 2배 응모 '성황' 심사위원 행복한 고민 연꽃 목탁 등 소재 한정 우수상품 지속적 관리 안정된 유통망 확보 '과제'

잘 어우러진 공예작품으로 높은 완성도를 인정받았다. 일반부문 대상작 '사천왕 페이퍼토이'는 사찰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천왕을 종이인형으로 제작해, 불교문화를 익살스럽고 재미있게 재탄생시킨 것이 특징이다.

우수상 전문가 부문엔 이선주 씨의 연잎, 연봉우리를 모티브로 한 연봉매듭 브로치가, 일반인 부문엔 이석진 씨의 목탁 모양의 자물쇠 '톡!톡!톡!'이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차지했

다. 또 장려상 일반 부문엔 연꽃을 새겨 넣은 대나무 장신구와 붓 브로치를 선보인 정윤숙 씨의 '꽃을 품은 나죽 장신구'와 오방색실로 엮은 연잎 장신구 팔찌를 만든 김지원 씨의 '불교사상', 불두를 형상화한 책갈피인 정승민 씨의 '헬로, 부다!'가, 전문가 부문에선 연꽃을 주제로 한 목걸이, 귀걸이 머리핀을 제작한 김동주 씨의 연화문 장신구가 낙점돼 각각 1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올해 신설된 특별상 부문 중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에는 최현철 씨의 '비오는 날의 풍경'이 당선됐다. 최 씨는 단청과 풍경 콘셉트의 우산을 디자인해 높은 평가를 얻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기와를 활용한 명상용 초꽃이를 제작한 양정숙 씨의 '기와 그리고 빛'이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한국디자인기업협회상에는 방삼미 씨의 연꽃 디자인 다포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이 선정됐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

사찰 급경사지 모노레일시스템 Monorail System



모노레일은 차량동행이 어렵거나 경사가 심해 출입이 불편한 사찰이나 암자 등 입지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환경훼손 없이 생활물품이나 건축자재를 편안하게 운송할 수 있는 친환경운송시스템입니다.

“전화 한통이면 됩니다!”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제품



KMG

문의전화

1644-2622

TeI 02.546.2621 Fax 02.546.1011

한국모노레일 www.monorail.co.kr

※2014년 3월 6일(목)~9일(일) 불교박람회에 오시면 시승하실 수 있습니다.

‘불심’ 잡으려면 최소한 예의부터 갖춰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5년 내 내 끊이지 않는 종교편향과 특정 종교 인사 등을 중심으로 불교계와 불편한 관계를 형성했다. 서울시 봉헌 발언에다가 무릎을 꿇고 통성기도까지 펼쳤던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불교계 행사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이슈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 전 대통령이 합장하는 모습이 더욱 더 관심을 끌었다. 이 전 대통령은 두 손을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하는 게 아니라 배 아래 모아 다소 우스꽝스러운 합장을 하는 경우가 더 잦았기 때문이다. 합장인사는 불교계의 최소한의 예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통령은 하기 싫은데 하지못해 해준다는 인상마저 남겨 불자들의 마음을 씩씩하게 만들었다.

박인택 기자의 현장에서



parkintak@ibulgyo.com

지 소개하는 등 불교와의 인연을 강조하며 일종의 '불심(佛心)잡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찰이나 불교단체 행사를 취재하다보면 이 전 대통령 못지않은 정치인이나 기관장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최소한 사찰이나 불교 행사장에 참가했다면 합장반배로 인사하는 건 가장 기본적인 절집의 예절임에도 사부대중 앞에서 축사나 내빈 소개할 때마저도 합장인사가 아닌 90도 인사를 건네고 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진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불자들의 표심을 잡았다며 사찰과 불교 행사에 참가하면서도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는 정치인이 과연

불심을 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 “절집에 들어오면 합장인사하는 게 기본예절”이라고 스님들이 한마디씩 건넨다면 이같은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도 지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의 발걸이 잦은 서울 조계사는 타종교인이 찾을 경우에는 부처님께 직접 3배를 올리는 게 불편할 수 있다는 배려로 대웅전 밖에서 합장반배를 올리며 예를 올리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치인에게 표를 갖고 있는 국민은 또 다른 부처님이자 하나님이다. 부처님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거창하고 탈썬한 공약을 제시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예의부터 지키는 낮은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불자들이 어슬픈 불교와의 인연이나 실천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에 귀를 쫓겨 세울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예의부터 지키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소중한 환포를 행사하길 기대한다.

어현경 기자 eonako@ibulgyo.com